

Acetic Acid 시장 “폭풍전야...”

Methanol 가격강세와 공급량 타이트 불구하고 가격변화 없어

Acetic Acid 시장은 다른 석유화학제품과 달리 내수가격은 물론 Spot가격도 이상하게 변동이 없어 생산-수요처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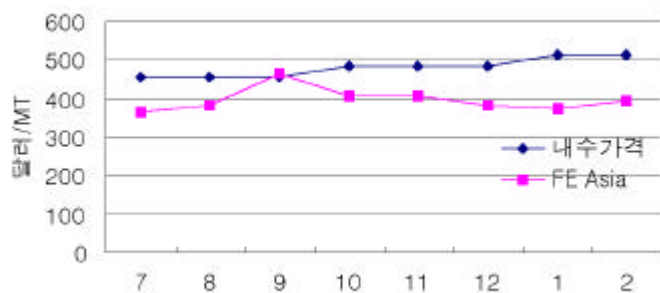
2002년 Acetic Acid 가격은 톤당 330달러대로 시작했으나 2003년 2월28일에는 395달러대로 1년여 동안 65달러 상승한 반면, 원료인 Methanol은 100달러 이상 올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Methanol과의 가격격차도 2002년 초 200달러대에서 2003년 100달러대로 크게 줄어 원가상승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Acetic Acid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격인상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cetic Acid의 가격인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뚜렷한 원인이 분석되지 않고 있다.

2002년 싱가포르 Celanese와 말레이시아 BP Petronas Acetals 등 아시아지역에서 트러블이 발생했고, 2003년에도 Acetic Acid의 Down Stream인 TPA의 신증설이 국내외적으로 줄지어 예정돼 있어 해외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etic Acid 가격은 일시적 상승만 있었을 뿐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02년 국내에서 생산된 Acetic Acid 생산량은 39만7000톤이고 국내수요는 36만2000톤으로 조사돼 국내수요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삼남석유화학이 TPA(Terephthalic Acid) 40만톤 설비를 4월 가동하면서 Acetic Acid 국내수요가 약 2만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Acetic Acid의 증설계획이 없는 국내에서도 역시 수급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게 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Acetic Acid는 원재료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지만 삼남석유화학의 TPA 신규설비 가동과 정기보수 영향으로 곧 있을 1/4분기 내수가격 조정에서 크게 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생산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그 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Methanol 가격 인상률까지 반영에 들어가 적어도 상반기까지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BP화학과 동양제철화학은 정기보수가 5월로 예정돼 있고, 동양제철화학은 6월 중순경 PVA(Polyvinyl Acetate)의 증설로 Acetic Acid 생산량이 3000톤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림 기자>

<Chemical Journal 2003/ 03/ 18>